

팻딘 예열 끝 “재미있는 시즌 될 것”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팻 딘이 26일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 등판해 5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시범경기 NC전 5-4 승

5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

공격적 피칭·경기 운영력 합격점

“나가는 경기마다 팀 승리 목표”

‘신입 호랑이’ 팻 딘의 2017시즌 리허설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5-4 승리를 거뒀다.

KBO리그 첫 시즌을 앞둔 팻 딘은 이번 시범 경기 세 번째 선발 등판을 소화하며 한국 무대 적응을 끝냈다. 성적표도 훌륭하다.

팻 딘은 이날 NC 타선을 5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사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은 팻 딘은 탈삼진은 7개를 수확하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팻 딘은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도 7.1이닝 3피안타(1피홈런) 4사사구 5탈삼진 3실점(2자책)의 좋은 성적을 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도 빠르고 적극적인 승부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이날 18명의 타자를 상대한 팻 딘이 남긴 초구 볼넷은 단 2개. 71개의 공을 던진 팻 딘은 스트라이크 53개, 볼 18개의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최고 149km의 직구와 커브(127km), 포크(139km), 투심(146km), 커터(143km) 등을 구사해 경기를 풀어갔다

팻 딘은 본인에게 주어진 5이닝의 임무를 완수한 뒤 불펜 피칭을 통해 100개의 공을 채우면서 시즌을 위한 스피드도 했다.

팻 딘은 “투구가 만족스러웠다. 상대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트렸다는 것에 만족한다. 원래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헛스윙을 많이 유도하게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시범경기를 통해서 한국 타자들의 전력을 살펴본 팻 딘은 “어렵지만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팻 딘은 “한국 야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쟁력 있는 타자들이 많다.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며 “내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타석에서는 김기태 감독을 고만케 하는 비주전들의 활약이 있었다.

시범경기 최종전을 맞아 김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제외한 라인업을 내어놓았다. 캠프에서부터 시범경기까지 고생한 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이었다. ‘현역 빅리거’ 맨십을 맞은 타자들은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마지막 엔트리 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김 감독의 마음을 흔들었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신종길의 톱타자로 나와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 남다른 타격의 고졸 2년 차 신병수와 최원준도 안타를 신고했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최원준은 5회 세 번째 타석에는 1타점 3루타도 때려냈다.

내야수 이인행이 타점을 올렸고, 외야수 이준호도 멀티 히트 활약을 하는 등 이날 선발로 나온 타자들은 마지막 어필 무대에서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하며, NC 타선과의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황재균 ML 진입 ‘성큼’

시범경기서 끝내기 안타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메이저리그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황재균은 2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1루수 대수비로 나와 팀 승리를 이끄는 끝내기 안타를 때렸다. 7-7로 맞선 9회말 무사만루 찬스에서 중전 안타로 샌프란시스코에 8-7 승리를 안겼다.

2타수 1안타를 기록한 황재균의 시범경기 타율은 0.297에서 0.308(39타수 12안타)로 올랐다. 타점은 11개, 4홈런 5득점도 기록 중이다.

3루수가 주 포지션인 황재균은 팀이 5-7로 뒤진 7회초 버스터 포지 대신 투입돼 1루수 겸 4번 타자를 맡았다.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가 6-7로 추격한 7회말 1사 3루에서 첫 타석을 맞았으나 오른손 투수 필 매틴에게 공 3개로 루킹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황재균은 이날 팀 동료와 코치가 뽑은 올해의 스프링캠프 신인상인 ‘2017 바니 뉴턴트 어워드’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연합뉴스

“KIA 선수들 성숙해졌다”

수비 실수·사사구 실점 등은 아쉬워

시범경기 끝낸 김기태 감독



5승6패로 끝난 ‘호랑이 군단’의 2017 시범경기. 사령탑 김기태 감독은 “만족스럽다”며 지난 2주를 돌아봤다.

KIA 타이거즈는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을 5-4, 승리로 장식했다. 25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11경기를 소화한 KIA의 성적은 5승6패다. 승보다 패가 더 많지만 김기태 감독의 표정은 좋다.

김 감독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만족스럽다”며 “부상 선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많이 달라졌다. 목표의식이 커진 것 같다. 해보려 하는 마음들이 강했다. 선수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시범경기를 돌아봤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밀하지 못한 플레이는 앞으로 김 감독과 선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 감독은 “삼진을 당하는 과정, 팀 배팅이라든가 작은 수비나 사사구 실점 등이 아쉬웠다. 안 줬도 됐던 실점들이 있었다. 실수만 줄이면 몇 승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세밀한 플레이를 강조했다.

2주간의 시범경기 일정이 끝나면서 2017시즌 향해를 위한 27인 엔트리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 26일 최종전을 앞두고 김 감독은 ‘순리’와 ‘변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순리대로 갈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오늘 경기에 따라서 판단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시범경기를 끝으로 KIA의 경기 일정은 마무리됐다. KIA는 특별한 연습경기 없이 28일 야간 훈련과 라이브 배팅으로 31일 개막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끝낼 예정이다.

김 감독은 “이제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쉬고 조절해야 한다”며 “컨디션 조절 잘해서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연맹, 기영옥 광주FC 단장 상벌위 회부 유감”

광주시의회 “프로축구 활성화 찬물…원만한 해결” 촉구

광주시의회가 프로축구 광주 FC와 FC서울 간 경기에서 나온 오심 판정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심판의 ‘고의 또는 의도성’ 의혹을 제기한 기영옥 광주FC 단장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회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 회부가 광주시민들의 축구 사랑과 프로축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광주FC는 열악한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축구사랑의 뜻과 정성을 모아주어 출범시킨 범시민 구단으로 연맹에서 팬이 없는 프로축구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축구는 괄목할 발전을 했지만, 심판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진 분야라는 것이 스포츠계의 일반적 견해라면서, 심판 판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심에 대한 엄격한 징계보다는 심판진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1-2로 역전패당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오심이고,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심 판정이 확인된 심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 언급이나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경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 단장을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출신 이미림 우승컵 들까

LPGA KIA 클래식 3R 1위

허미정 2위·전인지 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기아 클래식 최종 라운드는 한국 선수끼리 우승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 아비아라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미림이 단독 선두, 허미정이 1타차 2위로 나섰다.

이미림은 이날 버디 6개를 몰아치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리더보드 맨 윗줄을 차지했다.

2014년에 마이어 클래식, 레인우드 클래식 등 2차례 우승을 거뒀지만 이후 정상 문턱에서 맴돌기만 했던 이미림은 2년5개월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다.

허미정은 아비아라 골프장에서 승부처로 꼽는 마지막 3개를 16, 17, 18번홀을 모조리 버디로 장식하며 6타를 줄인 끝에 이미림과 최종 라운드 맞

대결을 펼치게 됐다. 허미정 역시 2009년 셰이프웨이 클래식,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 두 번 우승했으나 2년이 넘도록 3승 고지를 밟지 못하고 있다.

작년 신인왕 전인지는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5언더파 67타를 때린 전인지는 이미림에 3타차 공동 3위(10언더파 206타)로 3라운드를 마쳤다.

무려 7타를 줄인 유소연과 3언더파 69타를 친 박성현은 공동 8위(8언더파 208타)로 뒤를 반쳤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이미림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했던 20년차 베테랑 크리스티 커(미국)는 1언더파 71타로 다소 부진했지만 3타차 공동 3위에 자리 잡았다. 올해 개막전 챔피언 브리타니 린 시킴(미국)과 오스틴 언스트(미국), 카린 이서르(프랑스) 등이 공동 5위(9언더파 207타)에 포진했다.

1, 2라운드에서 몸이 무거웠던 박인비는 6언더파 66타를 쳐 공동 16위(6언더파 210타)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연합뉴스